

제84차 OPEC 총회 결과와 전망

金 乾 洽
(本誌 편집인)

지난 11월 21일부터 28일까지 빈에서 열린 제84차 OPEC(석유수출국기구) 총회는 진통끝에 1천8백50만B/D의 산유쿼터와 배럴당 18달러의 공식 가격을 내용으로 한 새로운 산유협정에 합의 했다. 이로써 OPEC는 그동안 무분별한 증산으로 배럴당 10~12달러까지 떨어졌던 油價를 회복시킬 발판을 일단 마련 했다. 이번 회의에서 최대쟁점이 되었던 이란, 이라크의 석유쿼터배분문제는 양국에 2백64만B/D씩 같은 수준의 쿼터를 할당함으로써 일단락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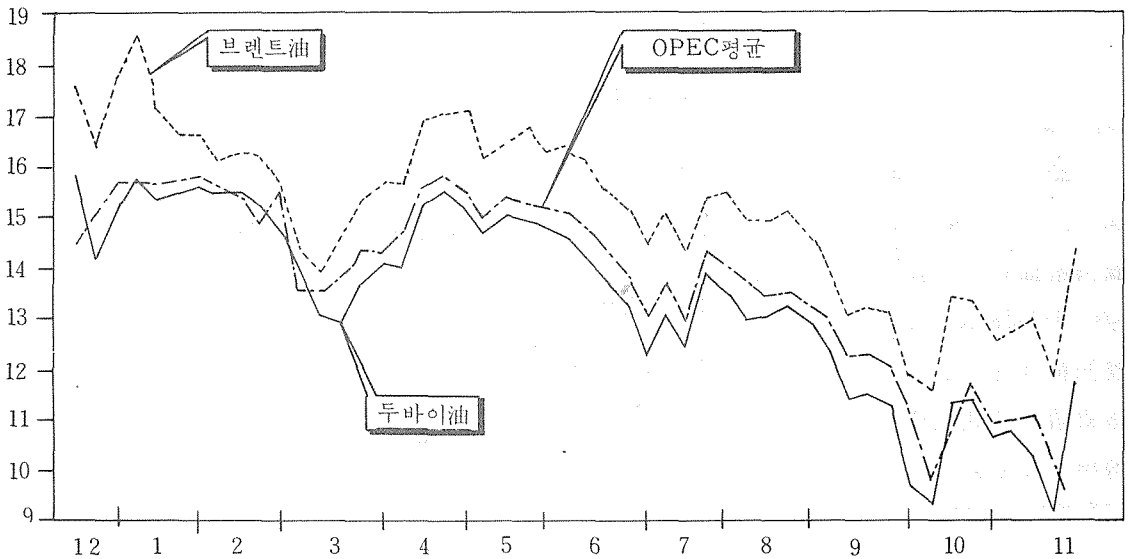
내년 6월까지 유효한 이번 협정이 갖는 의의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로 이번 총회는 지난 86년 이후 사실상 붕괴되었던 OPEC 산유쿼터체제를 재구축하는데 성공했다는 점이다.

이번 협정으로 이란·이라크戰 종식 이후 OPEC내의 정치적 문제해결에 큰 진전을 가져왔으며, 지난 86년 12월 이후 쿼터배정에 불만을 품고 OPEC체제를 이탈해 OPEC의 결속력과 신뢰성을 실추시킨 이라크를 다시 체제안으로 끌어 들이는데 성공했다.

둘째로 이번 총회를 계기로 OPEC내에서 이란의 지위가 다시 부상, 강화됨으로써 앞으로 사우디아라비아의 低油價정책과 이란의 高油價정책간의 갈등이 예상되

원유현물가격 변동추이



66

앞으로의 유가동향은 사우디 아라비아의 저유가정책과 이란의 고유가정책이 얼마나 조화를 이루느냐에 따라, 유가회복속도가 결정될 것이다. 그러나 유가회복은 OPEC 회원국들이 새 산유쿼타를 준수한다는 전제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의문이다.

99

는데 이들 상반되는 두 정책이 얼마나 조화를 이루느냐에 따라 油價회복의 속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미 금년봄부터 스윙프로듀서(생산조절자)로서의 역할을 포기, 증산에 박차를 가했다. 야마니 前사우디 석유장관은 총회전에『일부 OPEC회원국은 배럴당 13달러 수준의 가격을 지향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 총회 마지막 순간에 사우디가 하한가격을 제안하고 나섬으로써 이러한 관측을 뒷받침해 주었다. 현재 배럴당 18달러의 固定油價制를 고수하고 있는 나라는 이란, 알제리등 일부 강경파국가 뿐인데, 앞으로 사우디가 기존정책을 적극 밀고 나올 경우 OPEC가 高油價정책에서 시장점유율확대정책으로 선회할 가능성

도 없지 않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미 美國의 메이저(국제석유자본)인 텍사코와 합작으로 美國內에서 석유정제와 판매시설을 확보하는등하류부문의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어 앞으로 이같은 하류부문重視의 판매전략은 다른 회원국에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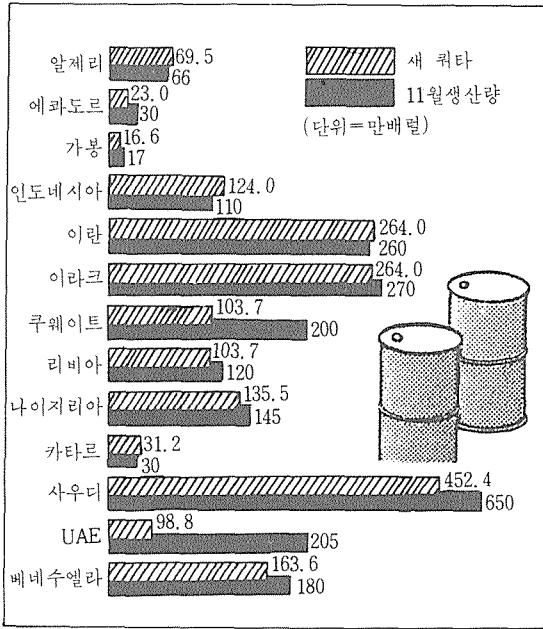
油價회복은 OPEC 13개 회원국들이 새로운 산유쿼타를 준수한다는 전제에서만 가능하다. 그러나 OPEC 회원국들이 앞으로 제대로 쿼타를 준수할지는 과거의 전례를 보아 의문시되고 있다. 단적인 例로 OPEC총회 폐막 직후 아랍에미리트의 오타이바석유장관은『이번에 새로 합의된 OPEC 산유쿼타는 공식적인 쿼타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같은 발언은 현재 2백만B/D에 달하는 산유량을 새 쿼타인 98만8천B/D(중전94만8천B/D)로 대폭 감축할 의사가 없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쿠웨이트의 칼리파석유장관도『차기총회에서OPEC 산유쿼타를 2천50만B/D로 늘려야 한다.』 12월에는 2백만B/D(산유쿼타 1백3만7천B/D) 생산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또 戰後복구를 위해 석유수입확보에 애쓰고 있는 이란, 이라크와 누적채무로 허덕이는 베네수엘라 등도 쿼타를 위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현재 OPEC 산유량은 2천2백만 내지 2천3백만B/D로써 수요를 2백만B/D 이상 초과하고 있으며, OPEC산유국들은 신규쿼타가 발표되기 전인 금년말까지는 현재의 초과생산을 계속할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내년 1/4분기에는 재고방출과다로 인해 油價하락압력이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내년 1/4분기의 OPEC원유수요는 1천7백30만B/D로 추정되며, 이번 총회에서 결정된 신규산유쿼타(1천8백50만B/D)가 준수된다 하더라도 결국 1백20만B/D의 초과공급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油價는 배럴당 12~13달러

OPEC산유 쿼타 內譯 (單位：千 B/D)

	산 유 쿼 타		
	既 存	新 規	增 減
사우디아라비아	4,343	4,524	181
이 란	2,369	2,640	271
이 라 크	1,540	2,640	1,100
쿠 웨 이 트	996	1,037	41
아랍에미리트	948	988	40
카 타 르	299	312	13
베네수엘라	1,571	1,636	65
나이지리아	1,302	1,355	54
인도네시아	1,190	1,240	50
리비아	996	1,037	41
알제리	667	695	28
가봉	159	166	7
에콰도르	221	230	9
計	16,600	18,500	1,900

OPEC의 11월중 產油量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총회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등 많은 회원국이 강한 불만을 갖고 있어 신규 쿼타가 제대로 지킬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어느 한 나라의 쿼타 위반은 나머지 국가의 자유생산을 가져올 것이며, 이 경우 油價는 배럴당 10달러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무엇보다도 쿼타위반국에 대한 구속력 있

는 제재조치가 없는 점이 이번 협정의 최대약점이다. 이번 협정에서 새로 설치키로 한 가격감시위원회도 임시의회의 소집권 등 그 기능이 강화되긴 했지만, 위반국을 효율적으로 통제할 방법을 갖고 있지는 않다.

油價가 18달러 수준을 유지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입장에서 알 수 있다. 안정적인 석유수입확보를 추구하는 사우디는 총회폐막 직전에 갑자기 배럴당 15달러의 하한가격을 제시해 가격급등에 제동을 걸었다. 사우디의 배럴당 15달러 油價주장은 저유가로 안정수요를 확보하려는 시장점유율확대전략에서 나온 것이다. 유가하락은 예상 이상의 석유수요를 증가시켜 85년 이후 OPEC의 석유수요가 연평균 2% 정도 늘어나고 있고, 이는 또한 非OPEC 산유국들의 증산투자욕을 줄이고 대체에너지개발을 억제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시 말하면 油價는 배럴당 15달러 수준이 적정하다는 것이 사우디의 입장이다. 따라서 앞으로 사우디는 유가가 급등할 우려가 있으면 증산으로 유가하락을 유도할 가능성도 있다.

과거 OPEC의 형태를 보면, OPEC의 합의사항은 단순히 「서류상의 합의」로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의 협정이 준수된다 하더라도 OPEC의 재고량 2백만 B/D와 非OPEC의 증산, 소비국의 석유비축 등으로 대폭적인 유가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유가가 회복되더라도 배럴당 15달러 수준에 머물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

국제 油價 전망

	油 價 前 망	비 고
에너지경제연구원	상한 14\$/B, 하한 10\$/B 이상	1988년 12월~1989년 3월
DRI	월평균 10~11\$/B	"
PEL	12~14\$/B	"
ESA	11~13\$/B	1989년 2월
뉴욕석유시장	13.5~14.5\$/B (상한치)	1989년 1/4분기
런던석유시장	10\$/B 이하 (하한치)	"
나제르 사우디석유장관	15~18\$/B (목표치)	"
칼리파 쿠웨이트석유장관	14~18\$/B (목표치)	"
루크만 OPEC의장	18\$/B 도달	1989년 6월 까지